

2천여 불자 교수 역할 중요



2014년 3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교불련 25주년 법회 현장.



2014년 진행된 대학생 지도교수 간담회에서 불자 교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최용춘 교수



통도사에서 진행된 하기 교수불자대회 모습. 문화재해설 등이 곁들여져 높은 호응을 얻었다.



2014년 6월 해인사에서 열린 교수불자대회 입재식에서 삼귀의례를 하고있는 참가자들

학교 내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길러내고, 또 종립학교로서 이들이 불심을 갖고 사회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2010년 보문학원 이사장을 맡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갈등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중요한 점은 각자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서불대 문제도 각자의 역할에서 벗어난 일을 했기에 사태가 악화됐 습니다. 그 무엇보다 긴 시각을 갖고 바라봐야 합니다."

신행활동 바탕으로 주변 이웃 보살필 것

최 교수는 교불련 회장 임기를 마치고 명예회장직을 수행한다. 최 교수는 소임을 벗은 만큼 본연의 일에 충실 하는 한편, 신행활동도 보다 활발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가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중선봉행 제약 막작(衆善奉行 諸惡莫作). 모든 악함을 짓지 말고 여러 선 함을 받들어 행하라는 말로 도림선사와 백낙천의 선문답 에서 나오는 말이다.

최 교수는 "백낙천의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다 아는 말 아닌가'는 질문에 '80먹은 노인도 행하기는 어렵다 고 답한 스님의 말씀이 가슴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불교의 가르침은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사는 것"이라며 "그러나 실천이 어렵기 때문에 죄 짓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실천'을 강조했다.

현재 매일 <금강경> 3독과 108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최 교수는 특히 사찰을 많이 찾은 예정이다.

"아침에 일어나 108염주로 관음정권을 11번 합니다. 그리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3독, 금강경 1독, 108배를 하죠. 그렇게 하면 하루가 편안합니다. 소임을 내리는 만큼 여러곳을 가 볼 생각입니다. 지금도 집에서 가까운 곳은 어디든지 원주 영원사, 천태종 성문사, 국향사, 구룡사, 법흥사 등 적을 두지 않고 수시로 가는 편입니다."

최 회장은 연말이면 가족과 함께 월정사 시절 인연이 닿은 삼보 스님이 있는 법흥사에서 기도정진에 들어간다. 워낙 가족이 함께해 지금도 자녀들이 기억하는 가족 여행은 사찰로 간 것 밖에 없을 정도다.

"이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기념으로 함께 3000배를 하고, 군대에 가기 전 함께 3000배를 했습니다. 집에는 삼존불 모셔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장가를 간 뒤 아들이 어 느날 그러더군요. 자기 전에 관음정권을 하고 잔다고요."

최 교수는 "교수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의 안정을 찾고 내가 목표로 하는 곳이 일중해서 추진하는데 신행활동이 크게 도움이 됐다"며 "명상을 통해 논문 작성 전 머리를

정리하곤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기부활동을 비롯한 지역사회 활동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교도소에 특강을 가거나 하면 "모든 일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지만 재물이 없어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일곱 가지 가 있다는 뜻의 무재칠시(無財七施)를 가르치 기도 한다"며 자신의 신앙에 지침이 되는 법문들을 소개 했다.

"사실 원주에 목사님이 운영하는 밥상공동체가 있는데, 매월, 초파일, 추석, 설날 등에 지역 불우어르신을 직접 찾아가 밥을 해주는 봉사를 합니다. 취지에 공감해 쌀을 부담하고, 가끔은 노력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재물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부터 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최 교수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게 시작"이라며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고 함께 동참을 하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보통 말을 할 때 스스로를 예외로 하며 말합니다. 나부터 예외없이, 내가 먼저 하자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것이 바로 이타행입니다. 남을 탓하기 보다 내가 먼저 하나씩 해나간다면 불교가 발전하지 않을까요?"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법일기

미디어포교의 위력

오래 전 배우 안성기와 박중훈이 주연한 영화 '라디오 스타'를 무척 인상 깊게 보고 나도 언젠가는 라디오 진행을 해보고 싶다는 작은 포부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몇 해가 지나고 백양사에서 포교국장 소임과 함께 광주에 있는 백양사 포교당 관음사의 살림을 맡게 되어 매주 수요일 저녁에 2시간씩 천수다라니 49독 기도를 시작했다. 2시간을 잠시도 쉬지 않고 목탁을 두드리며 다라니를 외우다가 문득 영화 라디오스타가 떠올랐다. 나도 라디오를 진행하게 된다면 관음사를 널리 알리고 포교활동도 더욱 광범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작하기도 했다. 오프닝 원고를 직접 쓰고 심표를 찍어가며 몇 번을 읽고 또 반복해서 읽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야 차츰 목소리도 차분해지고 피디의 큐사인도 여유 있게 받게 되었다. 신도들과 지인들에게도 방송시간을 알려주고 많이 들어달라고 호부를 했다. 내 목소리를 사람들이 들어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늘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이 있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내 목소리가 무척 반가웠다고 인사하는 신도들도 차츰 늘어나면서 방송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양사에서 큰 행사가 있어 장내 진행을 맡게 되었는데 백양사 포교국장이라고 소개할 때는 잘



그림·박구원

기 전에도 남해 보리암에서 1년간 기도하며 포교에 전념할 수 있는 소임을 맡고 싶다는 발원이 성취된 경험이 있기에 이번에도 꼭 이루어 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전념했다.

그렇게 매주 수요일 저녁 빠지지 않고 기도하기를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광주 불교방송국 기술부장이 찾아왔다. 매일 오후에 방송하는 '무명을 밝히고'라는 프로그램 진행자가 자리를 옮기면서 대체할 진행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동안의 기도가 성취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두 말할 나위도 없이 하겠노라고 약속하고 분사 주지스님께도 재가를 받았다.

가끔 업무적으로 불교방송국에 방문한 경우는 있었지만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처음 발을 디딘 방송국은 느낌이 무척 새로웠다. 하지만 담당피디와 프로그램 제작 및 진행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방송이라는 것이 생각처럼 간단한 일은 아니었다. 담당피디는 평소처럼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했지만 긴장을 한 탓에 자꾸 침이 마르고 발음이 꼬이기 일쑤였다. 때로는 피디의 큐사인을 놓쳐서 다시 시

모르던 사람들이 광주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진행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무척 반가워하며 크게 박수를 보내 주었다. 진행을 마치고 만난 자원봉사자 가운데는 방송을 늘 들으면서 어떤 스님인지 궁금했다며 먼저 다가와 인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방송의 위력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부처님의 십대제자 가운데 설법이 가장 뛰어난 부처나존자가 스스로 어려운 여건을 찾아 포교에 전념한 것처럼 포교의 방법은 하는 사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맞춰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미디어를 손쉽게 접하는 현대인에 맞는 포교방법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지금도 많은 스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포교에 전념하고 계신다. 그 스님들이 더욱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불교 방송과 신문의 중요한 역할이다. 앞으로 더 다양한 콘텐츠로 불교를 널리 알리는 미디어의 위력을 기대해본다. 수안 스님(前 백양사 포교국장)



www.withbuddha.co.kr

이야기가 있는 불교 종합쇼핑몰

위드분다

위드분다만의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HANDMADE상품
국내불교작가들의 배어난 불교미술작품들을 매주 업데이트!

다양한 불교용품과 아이디어 넘치고 실용적인 불자용품
우수한 품질과 실속있는 착한 가격, 그리고 다양한 혜택
편리한 구매와 끝까지 책임지는 안전한 배송

항상 새로운 만족을 드리는 불교전문 종합쇼핑몰

네이버와 다음에서 위드분다를 검색하세요.